

발행일_ 2015. 5. 29 발행인_ 노 혁

발행처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339-00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전화_ 044-415-2114 팩스_ 044-415-2369) 제작_ 계문사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이경상 | 선임연구원 lks1428@nypi.re.kr

요약

- 이 연구에서는 2013년~2014년 2개년에 걸쳐 2040년까지의 청소년 미래 환경변화를 전망해보고 청소년 미래 환경변화 전망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전문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트렌드 분석,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청소년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 전문가 조사를 바탕으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미래 환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중요한 트렌드들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등)과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등)을 추출하였음.
-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앞에서 추출한 26개 트렌드 변수들 간의 향후 미래 관계를 측정,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하여 청소년 미래 환경변화를 전망하였음.
- 앞의 트렌드 분석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청소년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 청소년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등)의 실질적 활성화, 학교 내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 신뢰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소통합리성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 실시 등 일곱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환경의 변화추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결코 우호적이거나 긍정적이지 않음.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한부모 가구 청소년들의 수는 늘고 있음. 또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의 수가 늘고 있으며,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수도 점차 늘고 있고, 아동빈곤율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 의해 사교육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청소년의 직업선택은 편중화,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 추세임.

- ▶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의 변화, 입시위주의 교육환경의 지속 등은 청소년 세대 자체의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

- ▶ 청소년들의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미래 환경변화의 모습을 미리 전망해봄으로써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 ▶ 이 연구에서는 2013년~2014년 2개년에 걸쳐 2040년까지의 청소년 미래 환경변화를 전망해보고 청소년 미래 환경변화 전망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하였음. 1차 년도에는 청소년 미래 환경변화의 트렌드에 대한 전망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2차 년도에는 청소년 미래 환경변화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미래사회 청소년정책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II. 미래 환경변화 전망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

● 미래 환경변화 전망 I : 트렌드 분석

▶ 첫째, 문헌자료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환경관찰을 기반으로 6가지 메가트렌드와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음.

- 메가트렌드의 추출 : 거시환경을 인구구조, 개인의식, 사회관계, 사회인식, 사회구조, 기술환경의 6차원으로 나누고 6가지 메가트렌드들을 추출하였음.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 미시환경트렌드의 추출 : 미시환경을 가족, 또래, 학교, 매체, 진로의 5영역으로 나누고 20가지 미시환경 트렌드들을 추출하였음.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 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 약화,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

▶ 둘째, 앞에서 추출한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이 미래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미래 출현가능성과 정책적 중요성의 두 측면으로 나눠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전망해보았음.

-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미래 출현가능성에 대해서는 12명의 사회변동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각 “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시오”라고 묻은 다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의 척도로 측정하였음.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1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출현가능성

구분	트렌드	평균	표준 편차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66	.49
	2. 개인의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3.91	.66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58	.66
	4. 사회인식 : 저신리사회와 갈등 증가(M4)	3.66	.88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08	.99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33	1.15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58	.66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4.08	.79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F3)	3.83	.71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00	1.04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3.58	1.08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인식 및 기능의 약화(F6)	4.08	.66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16	1.19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00	.85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P2)	3.75	.96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3.66	.65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3.91	.51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83	.93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8	.79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58	.66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4.08	.51

구분	트렌드	평균	표준 편차
미시 환경 트렌드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3)	4.00	.60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4)	3.91	.90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91	1.16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4.00	.73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66	.88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미래 정책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안전·보호, 비행·범죄, 복지, 건강, 교육, 진로·직업, 활동, 권리·참여 등 8개 청소년정책 분야별 각 12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음. 각“트렌드가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의 미래 청소년 ○○정책 수립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지 평가해주시시오”라고 물은 다음, 정책수립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정도에 대해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의 척도로 측정하였음. 이후 각 정책분야별 전문가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8로 나눈 다음 결과를 제시하였음.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2 —————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의 정책적 중요성(전체)

구분	트렌드	평균	표준 편차
메가 트렌드	1. 인구구조 :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M1)	4.32	.71
	2. 개인인식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M2)	4.00	.90
	3. 사회관계 :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M3)	3.77	.86
	4. 사회인식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M4)	3.88	.83
	5. 사회구조 :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M5)	4.44	.75
	6. 기술환경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M6)	4.25	.69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1)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F1)	3.67	.93
	1. 가족환경 : (2) 가족내 세대간 상호작용의 재정립(F2)	3.70	.96
	1. 가족환경 : (3) 청소년세대들의 가족에 대한 의식의 변화(F3)	3.72	.82
	1. 가족환경 : (4)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F4)	4.28	.77
	1. 가족환경 : (5) 하위계층 가족 청소년들의 이탈가능성 증대(F5)	4.07	.78
	1. 가족환경 : (6)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F6)	3.59	.97

구분	트렌드	평균	표준 편차
미시 환경 트렌드	1. 가족환경 : (7) 청소년과 부모의 애착적 상호작용의 감소(F7)	3.80	.88
	2. 또래환경 : (1)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P1)	4.19	.74
	2. 또래환경 : (2)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P2)	3.84	.84
	2. 또래환경 : (3)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P3)	4.03	.89
	3. 학교환경 : (1)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S1)	4.37	.72
	3. 학교환경 : (2)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S2)	3.92	.93
	3. 학교환경 : (3) 다문화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S3)	4.04	.85
	4. 매체환경 : (1)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I1)	4.14	.79
	4. 매체환경 : (2) 정보기술을 통한 청소년들의 적극적 자기표현, 공유행위의 확산, 주류문화에의 도전 증가(I2)	3.90	.93
	4. 매체환경 : (3) 청소년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감정적 행위, 일시적 공동체 지향, 사회참여 행위의 증가(I3)	3.84	.90
	4. 매체환경 : (4)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I4)	4.16	.87
	5. 진로환경 : (1) 청소년 경제적 역량 강화 필요 증대(C1)	3.78	.91
	5. 진로환경 : (2)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C2)	3.96	.91
	5. 진로환경 : (3) 청소년 아르바이트 인권침해의 발생 및 가능성 증가(C3)	3.75	.98

척도 : (1) 매우 낮음, (2) 낮음, (3) 보통임, (4) 높음, (5) 매우 높음

▶ 분석결과 6가지 메가트렌드들과 20가지 미시환경트렌드들 모두 미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미래 환경변화 전망 II : 시나리오 분석

▶ 다음으로 청소년 미래 환경변화 전망을 위해 26개 트렌드 변수들 간의 향후 미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날 지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음.

- 전문가 조사는 26개 트렌드 변수들 간의 매트릭스 표를 만든 후, 복지·건강, 안전보호·비행범죄, 교육·진로직업, 활동·권리참여 정책분야별 전문가 총 40명을 대상으로 향후 미래 26개 트렌드 변수들 간의 상호 인과관계에 대한 전망을 측정하여 제시하였음.
- “향후 26년간(2015년~2040년) 미래 청소년환경 트렌드(6가지 차원별 메가트렌드와 5가지 영역별 미시환경 트렌드들) 변수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은 다음, 이들 변수들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나눠 매트릭스 형태로 배열한 표의 빈 칸에 본인이 생각하는 값을 직접 기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음.
-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0,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약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강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2로 측정하였음.
- 전문가조사의 최종 조사결과는 전문가들의 응답을 측정한 값의 평균을 낸 후, 1.00미만의 값은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0으로 코딩하고, 1.00이상의 값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제시하였음.
- 최종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간 관계-단일시나리오 분석결과

독립	종속	M1	M2	M3	M4	M5	M6	F1	F2	F3	F4	F5	F6	F7
M1			1.44	0	0	1.02	0	1.56	1.84	1.71	1.13	1.21	1.4	0
M2		1.28		1.47	1.54	1.24	1.31	1.47	1.6	1.71	1.1	1.24	1.52	1.48
M3		0	1.17		1.08	0	1.31	1	1.05	1.15	0	0	0	0
M4		0	1.35	1.07		1.4	1.21	1.28	1.1	0	1.4	1.44	1.05	0
M5		0	1.3	1.05	1.72		0	1.15	1.07	1.02	1.81	1.76	1.13	0
M6		0	1.15	1.27	1.2	0		0	0	0	0	0	0	1.02
F1		1.2	1.42	0	1.35	0	0		1.7	1.67	0	1.29	1.62	1.64
F2		1	0	0	0	0	0	0		1.47	0	0	1.13	1.16
F3		1.3	1.4	1.1	0	0	0	1.3	1.67		0	0	1.37	1.35
F4		0	1	0	1.52	1.74	0	1.07	0	0		1.81	0	0
F5		0	0	0	1.45	1.37	0	1.27	0	0	1.17		0	1.13
F6		1.35	1.42	0	1.1	0	0	1.61	1.52	1.6	0	1.1		1.45
F7		1	1.4	0	1.1	0	0	1.75	1.53	1.61	1	1.52	1.62	
P1		0	0	0	1.31	1.19	0	0	0	0	1.17	1.04	0	0
P2		0	1.36	1.31	1.07	0	1.24	0	0	0	0	1.05	0	0
P3		0	1.09	0	1.53	0	0	0	0	0	0	1.46	0	1.02
S1		0	1.31	1	1.39	1	1.04	1.21	0	0	1.09	1.36	1.29	1.19
S2		0	1	0	1.6	1.34	0	0	0	0	1.65	1.51	0	0
S3		0	1.26	0	1.58	1.41	0	1.12	0	0	1.36	1.43	0	0
I1		0	1.24	1.34	0	0	1.78	1.07	0	0	0	0	0	1.09
I2		0	0	1.22	0	0	1.24	0	0	0	0	0	0	0
I3		0	0	1.27	0	0	1.26	0	0	0	0	0	0	0
I4		0	1.25	1.39	1.47	0	1.27	1.05	0	0	0	1.24	0	1
C1		0	0	0	0	0	0	0	0	0	0	0	0	0
C2		1.07	1.14	1.04	1.41	1.53	0	1.46	1.17	1.17	1.43	1.43	1.34	1.02
C3		0	0	0	1.19	1.17	0	0	0	0	1.31	1.21	0	0

척도 : (-2) 강한 부정영향, (-1) 약한 부정영향, (0)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침.

(1) 약한 정적영향 (2) 강한 정적영향

표 3

미래 청소년환경 주요 변수간 관계-단일시나리오 분석결과(앞에서 계속)

독립 \ 종속	P1	P2	P3	S1	S2	S3	I1	I2	I3	I4	C1	C2	C3
M1	0	0	0	1.1	0	0	0	0	0	0	1.3	1.35	0
M2	0	1.45	0	1.47	0	1.37	1.43	1.02	1.12	1.42	0	1	0
M3	0	1.42	1.1	1.2	0	1	1.12	1.51	1.48	1.43	0	0	0
M4	1.45	1.17	1.32	1.38	1.67	1.35	0	0	0	1.3	0	1.3	1.12
M5	1.3	0	1.32	1.23	1.77	1.52	0	0	0	1.2	1.2	1.67	1.25
M6	0	1.66	0	1.1	0	0	1.76	1.67	1.67	1.37	0	0	0
F1	0	0	0	1.3	0	0	0	0	0	0	0	1.32	0
F2	0	0	0	0	0	0	0	0	0	0	0	0	0
F3	0	0	0	1	0	0	0	0	0	0	0	0	0
F4	1.15	1.05	1.37	1.25	1.62	1.2	0	1	1.05	1.35	1.17	1.25	0
F5	1.05	1.25	1.52	1.25	1.38	1.1	0	0	1.02	1.47	1.07	1.07	1.05
F6	0	0	0	1.3	0	0	0	0	0	0	0	1.07	0
F7	0	1.17	1.15	1.35	0	0	0	0	1.15	1.05	0	0	0
P1		0	1.23	0	1.2	1.74	0	0	0	0	0	0	0
P2	0		1.41	1.36	0	0	1.36	1.47	1.58	1.41	0	0	0
P3	1.05	1.28		1.73	0	1.13	0	0	0	1.51	0	0	0
S1	1.35	1.3	1.64		0	1.31	0	0	0	1.61	0	0	0
S2	1.07	0	1.02	1.07		1.13	0	0	0	1.07	0	0	0
S3	1.71	0	1.15	1.12	1.02		0	0	0	1.1	0	1.02	0
I1	0	1.41	0	0	0	0		1.73	1.86	1.52	0	0	0
I2	0	1	0	0	0	0	1.5		1.76	1.18	0	0	0
I3	0	1.28	0	0	0	0	1.44	1.63		1.26	0	0	0
I4	0	1.28	1.53	1.35	0	1.1	1.12	0	1.15		0	0	0
C1	0	0	0	0	0	0	0	0	0	0		0	0
C2	0	0	0	1.13	1.48	1.33	0	0	0	1.21	1.28		1.56
C3	0	0	0	0	1.02	1	0	0	0	0	1.02	1	

척도 : (-2) 강한 부적영향, (-1) 약한 부적영향, (0) 거의 혹은 전혀 영향을 안 미침,
 (1) 약한 정적영향 (2) 강한 정적영향

▶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양극화사회와 위험증가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미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고령화사회와 가족구조의 다양화, 청소년들의 가족내 부모돌봄 의식 및 기능의 약화,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청소년의 미래 사회공동체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전망되었음.
-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미래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양극화사회와 위험 증가,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 증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또래환경 변수로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가 향후 미래사회 청소년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전망되었음. 또한 이들 변수들은 각각 다른 환경 변수들을 통해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즉, 다문화 또래환경의 증가와 다문화갈등 증가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취약가구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 등을 거쳐,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그리고 폭력적 또래관계의 증가는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등을 통해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가족내 세대간 갈등의 증가, 청소년 취업난의 지속과 세대갈등 가능성의 증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미래사회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직접적으로는 물론, 고립사회와 개인주의의 강화, 감정사회와 현재주의의 강화,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 애착적 또래관계의 약화와 현재적 필요에 따른 네트워크적 또래관계의 강화,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 기다리는 행위 거부, 의견쏠림현상 심화, 중독현상 심화, 폭력행위의 증가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Ⅲ. 정책 제언

▶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

- 양극화 문제는 청소년 성장발달과정에서의 기회균등 보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임.
-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해소하여 청소년 성장발달과정에서의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 도입되어 시행중인 보육료, 양육수당제 도입에 이어 청소년들의 발달상황에 적합한 청소년 수당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현재 시행중인 보육료, 양육수당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 청소년 수당제의 제시가 다소 이른 제안일 수도 있지만, 향후 20여 년간의 사회발전을 고려하여 청소년 수당제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됨.

▶ 청소년 나눔활동(자원봉사, 기부 등)의 실질적 활성화

- 개인주의의 강화는 청소년의 미래 사회공동체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청소년들의 미래 사회공동체성을 담보하는 데는 자원봉사, 기부 등 청소년 나눔활동이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임. 세계적으로도 사회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청소년 나눔활동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교육부 등에서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현재 한국의 청소년 나눔활동은 입시위주의 교육문화 속에서 소극적, 형식적, 시간채우기 식으로 참여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청소년 나눔활동이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학교 내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

- 인성과 사회적 역량의 약화는 미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사회적 기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학교는 청소년들이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곳임과 동시에 가정, 또래관계 등과 함께 청소년들의 사회화 기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임.
-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현재 시행중인 학교 내 교과담당 교사들 이외에 청소년들의 인성과 사회적 역량을 지도하고 함양할 생활지도사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신뢰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 저신뢰사회와 갈등 증가는 청소년의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임.
- 청소년의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행과 행복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향후 예견되는 저신뢰 상황을 타개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사회적 자본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됨.

- ▶ 좋은 친구관계에 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 앞의 분석결과에서 또래환경 관련 변수들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청소년들의 중요한 사회화 기제 중의 하나인 또래관계가 미래사회에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소년 또래관계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함을 의미함.

- ▶ 세대간 이해 및 소통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 다문화 청소년 및 기성세대에 대한 사회통합역량의 약화는 청소년들의 기성세대와의 세대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임.
 - 세대간의 갈등 및 통합의 약화는 미래사회 청소년들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 따라서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 소통합리성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의 실시
 - 네트워크사회와 위험 증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사회의 의사소통합리성의 증대를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 따라서 청소년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증가가 예견됨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의 소통합리성 증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